
잔혹 연극

디스크월드 단편소설

테리 프래쳇 지음

Copyright © Terry Pratchett 1993

그날은 살아있다는 것이 흐뭇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날의 아침이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도 그가 살아있었다라면 좀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는, 사실 죽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특별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보다 더 죽은 상태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럼 보자구," 라고 콜론 경사(양크 모르포크 도시 순찰대, 야간 순찰대 소속)는 그의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의 사인은 a) 한 개, 이상의, 둔기로 구타 당함 b) 한 줄의 소시지에 교살 당함 c) 날카로운 이빨의, 적어도 두 마리 이상의, 동물에게 물림 이라고 되어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노비?"

"그야 용의자를 잡아 들여야죠, 경사님." 깔끔하게 경례를 해 보이며 뉘스 하사가 대답했다.

"용의자라고 했나, 노비?"

"이 사람 말입니다." 시체를 부츠 신은 발로 툭툭 치며 노비가 말했다. "의심스럽잖 습니까, 이렇게 죽어있는게 말예요. 게다가 술도 마시고 있었던 것 같구요. 죽은데 다 무질서하다 로 해서 신변불량으로 잡아들일 수 있다구요."

콜론은 머리를 긁적였다. 이 시체를 용의자라고 체포한다면, 그야, 확실한 장점이 있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근데 말이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마 바임스 대장님은 이걸 해결하시려고 할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데려가자고, 노비."

"그럼 이 소시지는 먹어도 되는 거죠, 경사님?" 뇽스 하사가 말했다.

디스크월드[*]의 가장 위대한 도시인 앙크-모르포크에서 고급 경찰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임스 대장은 음울한 기분이 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아마 이 우주에는 위저드들이 없고 (밀실 미스테리를 푼다면 만들어내는) 좀비들이 없고 (피해자가 목격자가 되는 살인 사건 같은 것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다) 개들이 밤에 별다른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거나 하지 않는 세상도 있을지 모른다고. 바임스 대장은 사막의 남자가 얼음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논리라는 것을 믿었다 - 다시 말해

서,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는 그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건의 해결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널빤지 위에 놓여진 푸른빛 얼굴을 한 시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반짝, 하는 흥분을 느꼈다. 여기는 뚜렷한 단서들이 있었다. 그는 제대로 된 단서를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도둑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장." 콜론 경사가 말했다. "이유인즉슨, 이 사람 주머니는 돈으로 가득했거든요. 11 달러나 있었습니다."

"가득이라고 할 정도의 돈은 아닌데." 바임스가 말했다.

"그게 다 페니하고 반 페니 거스름돈들이었습니다요, 대장. 바지가 어떻게 견뎠나 몰라요. 그리고 제 아주 뛰어난 머리는 이 사람이 쇼맨이란 것도 발견했습죠. 주머니에 이런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대장. '차스 슬럼버, 어린이 엔터테이너!'"

"아마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겠지?" 바임스가 말했다.

"예, 그게요," 콜론 경사가 대답했다. "캐롯 순경에게 목격자를 좀 찾아보라고 말해줬습죠."

"캐롯에게 살인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던 말이야? 혼자서?" 바임스가 말했다.

경사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던데요, 누구 아주 나이가 많고 좀 심하게 아픈 사람 혹시 모르냐고요."

불가사의한 디스크월드의 세계에서는 모든 살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있다. 이걸 그의 직업이다.

순찰대의 가장 젊은 멤버인 캐롯 순경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람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리고 그는 사실 단순하다. 그는 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함이란 칼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라던가 매복이 단순하고 손쉬운 것과 같은 격의 단순함이다. 그는 아마도 우주의 역사상 가장 직선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일 것이다.

캐롯은 방문객을 사뭇 기뻐하고 있는 한 노인의 침대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수첩을 꺼내 들 시간이 되었다.

"뭔가 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거기 계셨잖아요."

그래, 있었지, 라고 죽음은 말했다. 거기 있어야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소. 하지만 심히 의례적이지 않은 경우로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캐롯 순경은 말했다. "이유인즉슨, 당신은 진상 이후의 종
범이시거든요. 아니면 진상 이전의 종범이시구요."

젊은이, 나는 진상 그 자체요.

"그리고 저는 법의 대리인이지요." 캐롯 순경은 말했다. "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보고.. 에... 범인을 불라는 말인가? 누구를 끈지르라고? 째새 노릇을
하란 건가? 어쨌든- 아니오. 누구도 슬럼버 씨를 죽이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자네를
도와줄 수는 없네.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캐롯이 말했다. "이미 도와주셨거든요."

아차.

죽음은 캐롯이 몸을 구부리고서 오두막의 좁은 계단을 내려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었더라...

"저기요," 침대의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말했다. "난 107살이 넘소. 하루종일 기
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구."

아, 그래, 맞소.

죽음은 낯을 갈았다. 경찰의 취조에 도움을 주기는 처음이었다. 뭐, 누구에게든 자
기의 할 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캐롯 순경은 익숙한 걸음으로 도시의 중심가를 걸어갔다. 그는 '가설'을 하나 가지
고 있었다. 그는 '가설'들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단서를 모아서 다 더하면,
'가설'이 생긴다.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아야 한다.

소시지가 있었다. 누군가가 소시지를 샀으니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페니들이
있었다. 페니로 값을 치르는 인간의 종류는 딱 하나 뿐이다.

그는 소시지 가게에 들렀다. 그는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잠시 아이들과 이야
기를 나눴다.

그리고 캐롯은 다시 늙스 하사가 시체가 있었던 자리를 땅에 분필로 표시해놓은

(덤으로 시체의 실루엣에 색칠도 하고 입에 파이프도 물려주고 손에 지팡이도 들려주고 뒤에는 나무도 좀 그려놓은 - 지나가는 행인 중 몇은 노비의 헬멧 안에 7펜스를 던져주었다) 골목으로 돌아갔다. 그는 골목의 맨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얼마간 주시한 후 부서진 나무통 위에 걸터앉았다.

"괜찮아요, 이제 나와도 됩니다." 허공을 향해 그가 말했다. "놈(땅의 정령, 난장이)들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는걸요."

쓰레기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 빨간 모자를 쓴, 굵은 등에 매부리코를 가진 작은 남자와, 자기보다 더 작은 아가를 안고 있는 실내용 모자의 자그마한 여자와 작은 경찰, 주름진 칼라의 개, 그리고 아주 작은 악어가.

캐롯 순경은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자가 시켰어요," 작은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게 낮고 깊었다. "종종 우리를 때리곤 했지요. 악어도 때렸어요. 막대기로 때리는 것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에서 개 토비가 모은 돈을 모조리 다 가져가서는 술을 퍼마시고 뺏어버리곤 했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골목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주디하고 애기를 또 마구 때리다가 넘어졌는데--"

"그를 먼저 때린 건 누구였지요?" 캐롯이 말했다.

"우리 다요!"

"하지만 아주 세계 치지는 못했겠지요." 캐롯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당신들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목에 무언가가 걸려서 질식했더군요. 이게 뭐지요?"

그는 가족으로 된 작은 원반을 들어보였다.

"스와즐(swozzle/swatchel/swazzle)입니다." 작은 경찰이 말했다. "그 목소리를 내려고 쓰는 거였어요. 우리 목소리는 우습지 않다구요."

"이렇게 하는건 안된다구요!" 주디라 불린 여자가 말했다.

"이게 목에 걸렸더군요." 캐롯이 말했다. "멀리 도망치도록 하세요. 가능한한 멀리."

"협동 조합을 시작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인공 놈이 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실험극, 가두 연극, 그런 것들요. 그냥 막대기로 때리는 거 말구 말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을 했었던 겁니까?" 캐롯이 말했다.

"그 사람은 그게 새로운 종류의 공연이라고 했어요. 유행할 거라고 하면서요."

캐롯은 일어나서, 스와즐을 쓰레기 더미로 튕겨버렸다.

"과연 사람들이 그런걸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하는건 안된다구요."

[*] 납작한 모양에 거대한 거북이의 등을 타고 우주를 누비고 있는 세상이란 건데

뭐 세상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잔혹연극”은 W. H. 스미스에서 발행하는 잡지 ‘Bookcase’를 위해 쓰여진 단편이다. 위에 올라온 확장판은 오리콘 15 컨벤션의 프로그램 안내서에 실렸다.

이 단편의 온라인 버전은 작품의 간행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작가의 친절한 허락에 의해 가능해졌다. 그는 말하기를, “이 글이 프린트되어 도는 것은 보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개인 사용을 위해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다” 라고 했다.
